

멕시코 송유관 폭발로 22명 사망

기름도둑이 Pemex 송유관에 구멍 ... 가옥 83채 파손에 32채 완파

멕시코에서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에서 12월19일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푸에블라주의 발렌틴 메네세스 내무장관은 밀레니오 TV에 철도범들이 텍스멜루칸에서 국영 석유기업인 Pemex 파이프라인의 기름을 훔치려다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1차 조사에서는 기름도둑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것이 원인이 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네세스 장관은 송유관 폭발로 가옥 약 83채가 부분적으로 파손됐으며 32채는 완파했다고 말했다.

메네세스 장관은 “갱들이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뚫자 높은 압력 때문에 기름이 주변 거리로 흘렀으며 그때 스파크가 생기면서 거리가 불바다가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0>